

작품과 審査

尹 太 鉉

많은物件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고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筆者가 벡타이 하나 사는데 市中 店舖를 終日 헤맨 적이 있었다. 제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사는 사람의 보는 눈은 各樣各色이기 때문에 팔리는 것이 一定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한 物件이 이러할진데, 創作物, 特히 作品을 審査한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기 한 老處女의 立場에서 呼訴걸 하소연을 하고 싶다.

老處女는 人間으로 갖출것을 빠짐없이 다 갖추고 있다고 自負한다. 耳目口鼻로부터, 手足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 하나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이 없고 또 더 있는 것도 없다. 그런데 여러번 맞선을 보았지만 번번히 失敗하였다. 이제 그 原因이 自意든 他意든 그만 지쳐버린 狀態다. 그렇다고 시집가는 것을 아주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身勢를 恨歎하고 運命에 돌리다가도 맞선을 보라하면 또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번이야 되겠지”하고 自慰도 해본다.

그런데 맞선은 서로가 보아서 마음에 드느냐 안드느냐에 따라 可否가 決定된다고 보는 것이 原則인데 이 境遇는 다르다. 一方的으로 보이기 만하고 處分만 기다려야한다는 宿命을 지닌 것이다. 이런 모순 때문에 道理없이 苦杯를 마셔야 하였고 홀로 쓴 웃음을 지어야했다. 그러나 老處女는 언제까지나 병어리 냉가슴 앓듯 안방에서 울기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방문을 박차고 나와 이렇게 붓을 든 것이다.

○

○

그렇다고 잘나고 美人이라는 것은 決코 아니다. 지금 卞上은 내가 잘났소, 내가 壯士요, 名士요, 愛國者요, 등등 所謂 PR을 잘 해야 산다고 하지만 그렇기는 싫다. 다만 생긴 그대로를 公正하게 봐달라는 것이다. 여기서 생긴 그대로를 어떻게 公正하게 보느냐 하는 問題가 매우 重大하다는 것을 再強調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事物을 審査하고 判斷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면서도 이것이 真正한 意味에서 公平하게 다루워졌다는 點, 말하자면 누가 어떻게 反論하더라도, 妥當性을 認識시킬 수 있다는 데까지 이르지 않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

○

平生 山에서 지내온 나무꾼은 해가 산에서 뜬다고 主張하고 平生을 바다에서만 지낸 漁夫는 해가 바다에서 뜬다고 主張할 것이다. 이 두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經驗에서 본 確固不動한 判斷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기둥같다, 벽같다, 서까래 같다고 判斷한 것 亦是 그들대로의 一理임에는 틀림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이러한 極端的인 例로 나를 보아주는 사람에게 刺戟을 주자는 것은 勿論 전망진 일이라, 그런 意圖에서가 아니라 一般的으로 皮相의이고 偏僻的인 高집만을 主張해 서는 좀 困難하지 않느냐 하는 기우에서 말하는 것이다. 더우기 長久한 時日을 두고 心血을 기울여, 온갖 努力과 情熱을 다한데 對하여, 보아주는 側은 果然 얼마나 誠意와 時日을 가지고 보아주었는가, 反省할 余地가 있다고 본다.

○ ○
“仲媒를 잘하면 술이 석잔, 잘못하면 뺨이 석대”란 俗語가 있다. 本人끼리 어색하고 잘 모를 경우 仲媒人의 役割이 必要하다. 그래서 仲媒人은 雙方의 집안 內容이나, 事情, 意志등을 充分히 把握하여 結合의 可能性 如否를 檢討한 然後에 비로소 선을 보이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近間 所謂 結婚相談所란 仲媒業?이 생겨 社會의 物議를 일으키고 있다. 이는 純粹하게 信用을 爲主로 한 仲媒 役割을 벗어나, 어디까지나, 未婚者의 弱點을 利用하거나 虛偽事實을 가지고 結合시켜, 營利에만 치우친데, 問題點이 있는 것이다.

作品을 審査한다는 것은 一種의 作家와 建築主를 相對로 仲媒役割을 하는 것이라 하면 過言이 될까? 그렇지 않다면 老處女는 仲媒人에게 간곡히 付託을 드려야 하겠다.

○ ○
먼저 政策結婚을 시키기 爲한 “둘러리”를 만들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둘러리란 用語는 新郎, 新婦, 兩側에서 結婚式場에서 세운 것이 요사이 어 느새 特定對象을 定해 놓고 이를 合理化시키고 成立시키기 爲하여 한 犧牲物로 利用한 말하자만 祭物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이는 아주 不快하고 不正한 現象으로서 이러한 事實이 지난날 非一非再하였다고 본다.

다음은 고루고루 봐 달라는 것이다. 얼굴이나 脚線美만 보고 언뜻 速斷하거나, 걸모양에 치우치지만 말고 차근차근 만져보고 말을 들어보고, 속을 잘 알아 주십사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自身만이 잘 났다, 내 속을 왜 몰라 주냐고 생트집을 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디까지나 公平 無私하게 真正한 良心을 바탕으로한 廣義의 智識으로 偏重없는 判斷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 ○
仲媒人은 흔히 술 석잔만 생각하고 뺨 석대는 생각하지 않는 수가 많다. 이는 自身の 말이나 行動에 對하여 責任을 느끼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重要한 點이다. 노래나 雄辯, 또는 美人大會등등의 審査도 까다롭고 어렵다. 그러나 一生을 左右하는 內容을 包含할 때, 아니 永久不滅의 代代로 批判의 對象을 받은 作品을 審査하는 마당에 어찌 粗忍히 할 수 있으며 그 責任感

의 重要性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봐 달라는 立場보다 보는 立場이 몇배의 研究(對象에 對한)와 誠意가 必要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姿勢와 條件이 缺한 狀態에서 敢히 審査를 하겠노라 할 수 있겠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이다.

○ ○

出馬者는 그 나름대로의 政見을 發表하여야 한다. 그래서 有權者에게 自己 意志를 呼訴하여 한표라도 더 얻고자 한다. 사위를 求하거나 머느리를 求하거나, 雙方이 要求와 條件과 方法이 있다. 서로가 여기에 適合하여야 成事가 된다. 좋은 作品을 求하고자 할진데 理致는 마찬가지로 본다. 要求나 條件은 個個 事情이라 除論하고 여기서는 보고 挾하는 方法에 대하여 말하자.

첫째...審査委員을 專門分野別로, 定하고 該當分野만 採點式으로 할 것.

둘째...審査表를 作成하여 平面 計劃構造, 意匠, 設備, 配置(庭園)등 細分하여 採點할 것.

셋째...審査委員으로 하여금 各作品別로 觀評을 記入하고 싸인하도록 할 것.

넷째...作家와 審査委員의 接線을 強力한 罰則으로 嚴斷할 것.

다섯째...作家에게 要求나 條件을 細密히 說明하고 必要한 데이터를 充分히 提供할 것.

여섯째...審査에 對한 結果나 評을 作家에게 가림없이 보이는 雅量을 베풀 것.

일곱째...公開 展示를 열어, 一般 與論을 들을 機會를 마련하고(當落에 關關 없이), 落選者에게도 遺憾없는 誠意를 베풀 것 등등 大體의인 事項을 들고 싶다.

○ ○

사람은 누구나 自己 잘난 處에 살고싶고 長點만 내세우려는 것이 人之 常情이다. 反面에 短點을 들추어내도, 不快하지 않은 사람은 別로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勝負에 無條件 勝利만을 바라게 마련이다. 그러나 사람의 能力에는 限度가 있어, 自己만이 옳고 自己만이 잘나고 自己만이 얻어야 된다고 慾心을 갖는다는 것에 많은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自己에게 부여된 能力을 最大限 發揮하여 이에 對한 公平한 批判을 甘受할 수 있는 姿勢 또한 바람직 하다고 본다. 萬一 慾望에 어두워 能力 以上으로 權力에 依存하거나 金錢과 打合하는 등 手段, 方法을 다하여 目的을 達成하였다 한들 果然 멋있게 잘 살 수 있는지 疑問이다.

○ ○

婚期를 놓칠까봐 老處女는 마냥 조급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歲月을 묶어 놓을 수도 없는 일. 누구를 붙잡고 아첨할 수도 없는 일 平生을 홀로 살겠다고 決心할 수도 없는 일..... 다만, 훌륭한 郎君을 하루 빨리 만났으면 하는 一片丹心으로 作品에 임할 따름이다. 그래서 作品과 審査가 揮然一致하여 올바른 良心과 姿勢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보다 나은 創作物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믿어 疑心치 않는다. 그렇지 못할 境遇 우리 나라의 作品은 沈滯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後進들의 發展의 길마저 막아지는 結果를 超來한다는 것을 銘心하여야 할 것이다.